

## **1995**

### **Pang Hak-se Biography**

#### **Citation:**

"Pang Hak-se Biography", 1995,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Korean Section, Asian Reading Room, Library of Congress.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2385>

#### **Summary:**

Pang Hak-se was Minister of the Interior in North Korea until 1958.

#### **Original Language:**

Korean

#### **Contents:**

Original Scan

## 방 하 세 선생

(전 북한 중앙정보부 내부상)

방 하 세 선생은 1914년에 원동변강 연해주 백시예트 구역 바라눔까촌 백농원의 가정에서 태어 나셨습니다. 향촌에서 인민학교와 초중을 마감하신 다음 군행정 소재지인 노보끼예프 스크 국립 소도시에서 9년제 중학을 1931년에 마감하셨습니다.

바로 동년 가을에 소월드롭스키 국립종합대학 예과에 입학하여 일년동안 수학하신 다음 동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여 5년간 공부하신 다음 1937년에 필하셨습니다.

대학을 최우등 성적으로 졸업하신 방 선생은 (본명 방 나골라이 미그 나 지에 비치닌) 동년에 원동으로부터 한인들이 강제이주당하여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에 실려온 것을 원인으로 카자흐스탄 크를몰라시에 파견받아 시검찰소 예심원으로 2년간 일하신 다음 또검찰소에 전근

되어 1940년도까지 예심원으로 일하~~셨다~~  
~~다음~~도 부검사로 전직되어 1942년까지 일하  
 였다. 1942년 시월에는 카~~자~~흐탄 검찰  
 끄르간주 책임 검사로 영전되어 1944년  
 까지 일하셨습니다.



2

이시기에 전체한인들은 강제이주인이라 하여  
 각 행정, 정치, 내무기관들에 ~~잘~~ 등용하지 아니하  
 였으나 방학세 선생은 개성이 개끗하세고 아  
 주 총명하신, 또도 준비된 간부로써 검찰기관에  
~~차도~~ 잘 등용되시었다

1944년 10 월에는 방 선생이 다시 전근되  
 여 코슬몰다 주 책임검사로 이동되시었다. 이것  
 은 코슬몰다 주가 빨디꾸르간 주에 대하여 그 비  
 중이 아주 방대하였기 때문이였다.

1945년에 조선이 해방되자 1946년에는  
 전 소련적으로 준비된 한인 인재들을 선발하여  
 북한에 파견하게 되었다. 이에 의하여 방  
 선생은 당중앙 위원회의 파견에 따라 국제  
 공산당 의무 수행목적으로 북한에 파견되었다  
 당시 북한에는 소련군 25 군단이 치스다프코브  
 대장의 지휘하에 주둔하였으며, 소련군 총참모  
 라넨코 (중장의) 지도하에 인민사령부가 조  
 직되어 있으면서 인민정복 각 성, 부서, 각  
 정당 사회 단체들을 통솔, 거릴-지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안전부, 사회 안전부는 소련군  
 대좌 보자진이 지도하였던바 방학세 선생은

3.

바로 이때에 보자긴 대좌의 복색임자로 소련군이  
북한에서 철퇴할시-즉 1948년 말까지 일하시  
였다. 소련군이 철퇴하러 방학세 선생은 내무성  
복상으로 함일추행용사 박일우 내무상과 무척 관계  
이었는데다가 박일우 선생의 후임으로 내무상 직위에  
취임하여 1958년까지 일하시였다.

방학세 선생은 소련에서 북한에 파견되어 일  
하게 된 그 첫날부터 시작하여 보자긴 대좌의  
보좌관 때나, 내무성 부상 때나 또 내무상으로  
일할시에 북한 지도자 김일성의 가장 신임받은  
신복자로 김일성이 수반 명의 여러 혁명작들을  
처단한 그 모든것의 하나하나가 방학세 선생  
의 손으로 통하여, (그가 때로는 모르고 지냈다고 해도)  
실현된 것이기에 전세계에 분포하여 살고있는 전  
북한 출신 한민들은 누구나 다 할것없이 방학세 선  
생을 무르한 학살자라고 인정하고 있다. 사실  
방학세 선생은 아주 선량하고, 양심에 가득찬  
간부였지만 김일성의 '명예'를 지고, 굴레를 쓰고  
있다 보니 (후회기) 그저 할수없이 "하타는대로  
한 모양이다. 모스크바에 와서 계시던 전북한  
정권 대사 리상조 씨는 김일성에게 쓴 편지에  
방학세를 당장 처포하여 재판에 회부하여 처단



하야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사실 방학제 선생은 김일성 심복자로써 북한이  
정치적 위기의 혼란속에서든 오래 동안 고위직에서  
편되어 내리면서 ~~제대~~ 되었다. 그는 사실 자기의 천국  
인 허가이 알산 사건, 리익선의 <sup>생매장</sup> ~~한강~~ 사건, 박  
헌영이나 리봉업의 허위난조 사형 사건들을 잘  
알았으나 어찌 할수없었을것이다.

방학제 선생은 내륙상 직부에서 최고 재판소  
직부에 승진되어 들어가 신후 1965년 이후엔  
금생으로 들어가 목적으로 제선다고 하였으나  
현재 전무소속이다.

방학제 선생에게는 현재 유진백공화국이  
하류계는 주, 중류직 실험농장출이 당국이  
방 이리나 1916년 생이 생전에게서고,  
당동생 방 와실리 이노젠지비회가, 딸의  
각론 간주, 가라불라코 출에서 연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 바 그의 현재는 현재 82세이다.

방학제 누이 어리나의 재를 정리.